

## Winery Description and History

마드리드에서 조금 떨어진 남서부 Sierra de Gredos 봉우리는 고산 목초와 무너진 바위, 그리고 두터운 관목 숲으로 이루어져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점점이 흩어진 포도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대학 시절부터 오랜 친구였던 와인 메이커 다니엘 랜디와 페르난도 가르시아는 시에라 드 그레도스 중심가에서 가족 소유의 와이너리를 운영하다가 높은 산맥 위의 작은 포도밭에 이끌려 땅을 매입하고 2008년에 이르러 협력 와인 메이킹 프로젝트인 Comando G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이전에는 명성을 얻지 못했던 가르나차 품종을 부르고뉴 피노누아의 우아함과 기교에 필적할 만한 품종으로 재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들이 보유한 포도밭은 모두 비오디내믹 방식으로 경작과 수확이 이루어진다.

약 50~80년 수령의 포도나무에서 손 수확한 포도로 양조한 코만도지의 엔트리 레벨 가르나차인 엘 옴브레 발라는 신의 물방울에 이름을 올린 시그니처 레드 와인으로, 특히 2017, 2018 빈티지는 와인 황제 로버트 파커를 포함한 유수 와인 전문가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두 빈티지의 완성도는 완벽한 과일의 숙성도와 높은 집중도, 강렬한 풍미와 그럼에도 잃지 않는 산미를 맛보는 순간 여실히 드러나며, 마치 곱게 갈린 듯한 초키한 타닌의 존재와 제비꽃, 베리류의 향미를 남기는 긴 피니쉬는 스파이시한 에코를 입 안 가득 불러 일으킨다.



Madrid / Spain



Garnacha 98%, Carinena 2%



2017



13.5% / 750ml



화강암, 석영이 풍화된 모래 토양



14개월 프렌치 배럴 숙성



짙은 루비색



딸기, 라즈베리, 석류, 건포도, 블랙 체리의 아로마



유칼립투스, 시큼한 블랙 체리의 맛을 아우르는  
실키한 타닌, 감칠맛 나는 미네랄리티는 덤



모든 육류요리, 가금류, 키슈



RP : 93 Pts (2017, 2018 Vin)  
92 Pts (2016, 2014, 2012 Vin)